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 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과 신규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인도정부, 금년 내에 화물전용회랑(DFC)건설 관련 국제입찰 완료 계획-----	2
□ 인도 아다니 그룹, 호주 퀸즈랜드 Abbot Point 항만 석탄터미널 운영권 획득-----	4
□ 터키, 이스탄불Canal 건설 세부계획 발표-----	6
□ 에콰도르, Guayaquil항 Contecon사 7천만불 투자 -----	7
□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8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주호 책임연구원(02-2105-2890, jooho@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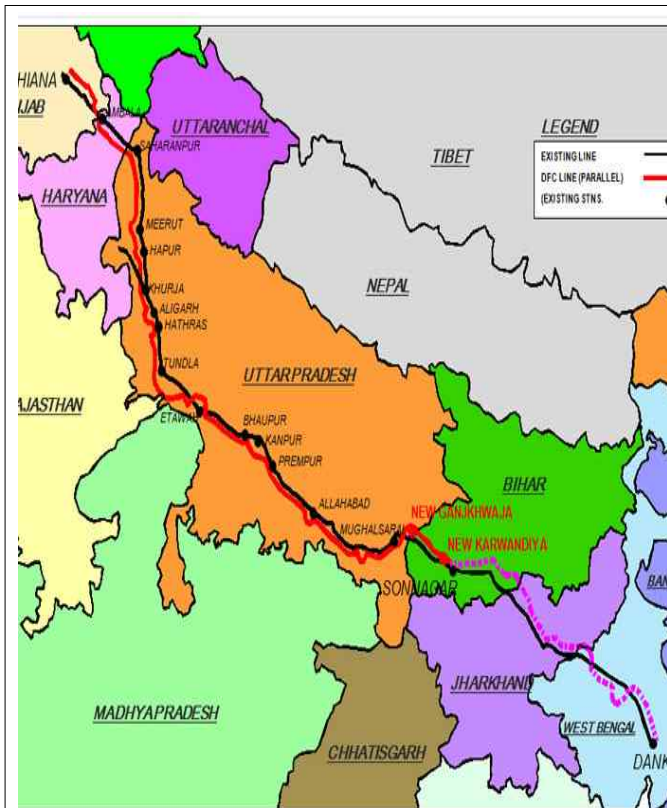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인도정부, 금년 내에 화물전용회랑(DFC)건설 관련 국제입찰 완료 계획

- 인도정부는 2011년 연말까지 화물전용회랑(Dedicated Freight Corridor : DFC)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입찰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
- DFC 프로젝트는 인도 철도시스템의 개선사업과 더불어 인도 동부와 서부지역의 회랑건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억 달러 규모이고, 사업 완료 시점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 철도시스템 개선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화차 높이(4.265m→5.1~7.1m), 궤도폭(3.2m→3.66m), 컨테이너 단적(single→double), 열차 길이(700m→1500m), 적재톤수(4천톤→1만 5천톤), 열차속도(75kmph→100kmph) 등을 포함
- 동부지역 화물전용회랑 건설 개요
 - 총 길이 : 1,279km
 - 구간 : Sonnagar↔Khurja (820km, 복선), Khurja↔Dadri (46km, 복선), Khurja↔Ludhiana (412km, 단선)
 - 경유구간 : Mughalsarai, Allahabad, Kanpur, Etawah, Tundla, Hathras, Aligarh, Hapur, Meerut, Saharanpur, Ambala, Rajpura, Sirhind, Doraha 및 Sanehwal
 - 건설목적 : 기존 철도의 포화상태 완화, 석탄 및 생활필수품 수송
 - 연간 운송 계획물량(2021~22년 목표) : 가정용석탄(6,196만톤), 산업용석탄(95만톤), 철(974만톤), 물류단지물량(480만톤), 비료(42만톤), 시멘트(152만톤), 제철소용 석회석(500만톤), 소금(103만톤), 기타(592만톤)
 - 단계별 건설계획 : 1단계(Sonenagar-Mughalsarai, 2009~2016년), 2단계(Mughalsarai-Khurja (710km), 2010~2016년), 3단계(Khurja-Ludhiana (Dandarikalan), 2011~2017년)
- 서부지역 화물전용회랑 건설 개요
 - 총 길이 : 1,483km
 - 구간 : JNPT↔Khurja (1,483km, 복선)
 - 연결지점(동부↔서부) : Dadri
 - 건설목적 : 산업단지와 항만(Mumbai, Pipavav, Mundra 및 Kandla항)을 연계하는 컨테이너 운송
 - 연간 운송 계획물량(2021~22년 목표) :
 - 수입물량(JNPT → Khurja) : 곡물 및 비료(180만톤), 석유제품(50만톤), 시멘트, 소금 및 기타(80만톤), 컨테이너(270만TEU)
 - 수출물량(Khurja → JNPT) : 석탄, 시멘트, 철광석 및 철제품(940만톤), 비료, 곡물 및 소금(260만톤), 석유제품(150만톤), 컨테이너(260만TEU)

KMI 국제물류위클리

- 단계별 건설계획 : 1단계(Rewari-Vadodara(920km), 2009~2016년), 2단계(Vadodara-JNPT(430km), 2010~2017년), 3단계(Rewar-Dadri(140km), 2010~2017년)
- 한편 화물전용회랑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 서부지역 화물전용회랑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67%는 일본 정부의 차관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 동부지역 화물전용회랑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한 융자로 조달할 계획임



<동부지역 화물전용회랑 연계도>



<서부지역 화물전용회랑 연계도>

자료 : Ci-Online, 2011.05.06. / Dedicated Freight Corridor Corporation of India Ltd. 홈페이지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인도 아다니 그룹, 호주 퀸즈랜드 Abbot Point 항만 석탄터미널 운영권 획득

- 인도 아다니(Adani) 그룹이 계열사인 Mundra 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 사의 호주 자회사인 Mundra Port Pty Limited를 통해, 호주 퀸즈랜드 Abbot Point 항만의 제1터미널(T1) 운영권을 획득하였음
- T1은 연간 처리능력 2,100만톤의 기존 터미널을 포함하여 연간 5,0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예정임
- 아다니 그룹의 운영기간은 99년이며 규모는 18억 2,900만 호주달러로 알려지고 있음
- 아다니 그룹은 2010년 8월에 호주 Linc Energy사로부터 Galilee 광산(유연탄)을 인수한 바 있으며, Galilee 광산의 생산규모에 따라 현재 T1의 처리능력인 5,000만톤을 향후 5년 내에 8,000만 톤으로의 증설을 고려하고 있음
- Abbot Point 항만은 호주 동북단에 위치한 석탄항만으로 2009년 1,500만톤, 2010년 1,700만 톤을 처리하였음

<Abbot Point 위치>



<Abbot Point T1 현황>



- 또한 Abbot Point 항만은 추가로 석탄터미널 개발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 T1은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산하의 North Queensland Bulk Ports(NQBP)사가 개발하여 인도 아다니사에 99년 운영권을 부여하였으나, T2와 T3은 2010년에 선정된 BHP와 Hancock이 개발과 운영을 모두 담당함
- T4~T7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으로 T2 및 T3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55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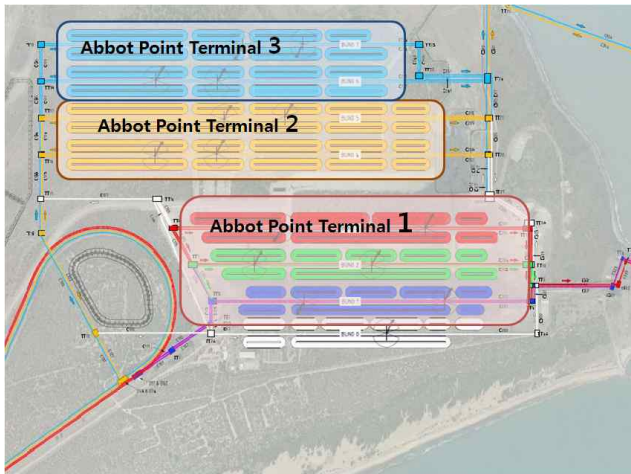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위클리

<Abbot Point 항만 석탄터미널 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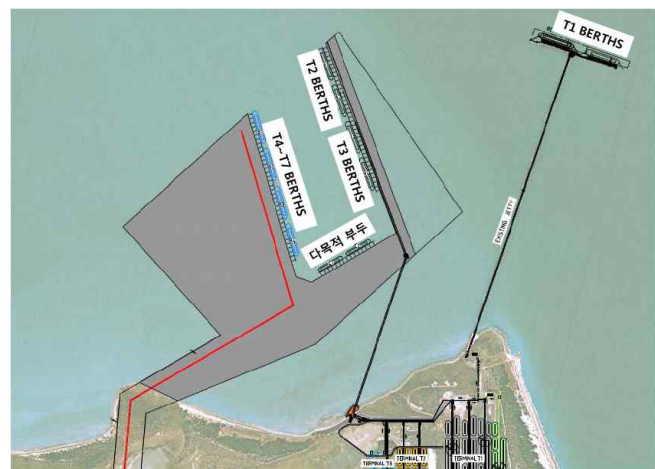
기존명칭	신규명칭	연간처리능력	운영사
X50	X50, Abbot Point Terminal 1	5,000만 톤	Adani
X80	Abbot Point Terminal 2	5,000만 톤	BHP Billiton
X110	Abbot Point Terminal 3	6,000만 톤	Hancock Coal
X230	Abbot Point Terminal 4~7	1억 2,000만 톤	미정

- 한편 NQBP사는 Abbot Point 항만에 석탄터미널 외에도 다목적 부두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억 달러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임
- 다목적 부두시설은 T2와 T3, T4~T7의 수출용 선박 접안시설을 포함하며, cape선박 기준으로 최대 12선석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약 23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Abbot Point Terminal 계획>



<다목적 부두시설 계획>



자료 : www.qld.gov.au, 2011.05.03. / www.dailymercury.com.au 2011.05.10.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터키, 이스탄불Canal 건설 세부계획 발표

- 이스탄불시 Kadir Topbas시장은 하루 150-160척의 선박이 처리가능한 수로 "Istanbul Canal"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지난 27일 Tayyip Erdogan수상이 발표한 계획을 구체화 함
 - 적체되어 있는 Bosphorus Canal에 8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함
 - 운하는 길이 45~50Km, 깊이 25m, 폭 150m로 300,000DWT까지 수용가능해 짐
- Bosphorus 운하는 흑해와 Marmara해를 연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그루지아, 루마니아, 러시아남부에서 애게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 함
 - 터키당국에 따르면 Bosphorus는 연간 1억4천만톤의 석유, 4백만톤의 가스, 3백만톤의 화학물질을 운송중에 있으며 세계 4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수로로 하루 150척의 선박이 이동한다고 함
 - 가장 좁은 곳이 700미터로, 진입하기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소용돌리 현상이 발생하여 선사들에게 악명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음
 - 프랑스 선장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1982-2003년 사이에 이곳에서 608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1979년에는 루마니아 유조선이 95,000톤의 기름을 유출시켰으며, 1994년에는 충돌사고로 9,000톤의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됨
- IHS World Market Energy는 이는 터키 선거기간 중 나온 이야기로 비용과 자연여건이 비현실적이고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언급

<Istanbul Canal위치>



<Bosphorus 해협>



자료: www.dpcmagazine.com 2011.04.28. / www.cargosystems.net 2011.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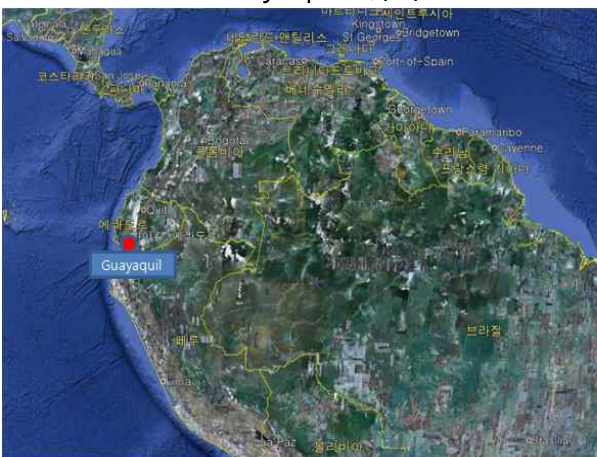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에콰도르, Guayaquil항 Contecon사 7천만불 투자

- 에콰도르 과야킬 Libertador터미널 운영자 Contecon사는 부두의 재개발, 신규 크레인의 도입 등에 7천만불 투자를 결정
 - 항만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2013년까지 설비구입 및 인프라시설 개선에 투자를 결정
 - 2개의 항만용 크레인, 11개의 야적장용 RTG 크레인, 2개의 공컨테이너 이동용 크레인, 12대의 특수트럭 및 14대의 트레일러구입에 3천4백만불을 투자하고 나머지 3천6백만불은 5헥타르의 야적장 재건축 및 냉동컨테이너와 연결위한 1,400개 전원장치 매입에 투자
- 지난해 Libertador터미널은 70만TEU를 처리했으며 올해는 15%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150만TEU 처리가 가능해지며 4천개의 냉동 컨테이너가 일시에 장치가 가능해진다고” Conteco사 측은 언급
 - 이미 한달전 항만용 크레인 1대와 야적장용 크레인 4대가 중국으로부터 도착했다고 발표
- * Contecon Guayaquil S.A: 필리핀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INC)의 자회사로 Libertador Simon Bolivar 다목적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회사임
- * Guayaquil port: 1959년 설립된 에콰도르의 대표항만으로 국가물동량의 70%를 처리하고 있음
 - 2010년 109만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23.7%가 증가했고 2010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지역(CEPAL)의 9번째 항만으로 기록됨
 - 항만은 Libertador Simon Bolivar항 터미널과 기타 민간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음

<Guayaquil 위치>



<Guayaquil Libertador터미널>



자료: www.mundomaritimo.cl 2011.05.09. / www.cgsa.com.ec 2011.05.09.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조사 목적

-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 관련 유망사업 발굴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 기간

- 2011. 4.25. ~ 5.31.

□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 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